자기 삶에 흥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글 | 김동환 _ 고려대 재료공학부 교수, 본지 편집위원 donghwan@korea.ac.kr

지난 2월 중순, 필자는 감기에 걸려 두통과 기침, 그리고 '내 몸 어디에 이렇게 액체가 많았는지' 싶을 정도로 끝없이 나오는 콧물 때문에 십여 일간 시달려야 했다. 매일 아침 종종 걸음으로 집을 나서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감기가 절정에 오른 며칠 동안은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20여년 전 교수님이 내준 숙제

누군가가 선물한 책 제목이 '남자 나이 50' 이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라는 거창한 부제까지 붙어 있어서 참으로 촌스럽기 그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별다른 저항 없이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책은 조금 따분한 문체로 써 있어서 이게 수필인지 평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읽기 어려웠다. 그래도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오십 줄에 들어서고 있다' 는 깨달음이었다. 그렇다고 삶을 다시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남은 시간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지금은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며 이런 책을 읽고 있지만, 아픈 게 낫고 힘이 회복되면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게 될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장을 한 장 두 장 넘기며 잠깐 든 생각은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또는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싶은가' 였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아마도 십 년 이상은 아닐 터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그 다음에 떠올랐다. '이제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바꿔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연구의 테마를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그래도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방법론 또는 체제에 대한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다.

언제나 필자는 연구실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줄을 섰던 것으로 기억된다. 포스트 닥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으로 학생을 한 명 더 뽑을 것인가, 무리가 되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몇 년에 걸쳐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과 고생하는 쪽을 택할 것인가 등의 선택을 놓고 언제나 후자를 택했던 것 같다.

왜, 언제나 이런 선택을 해서 학생들도 고생시키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지 못해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사는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못난 놈이 조상 탓' 을 하듯이 필자도 박사 때 지도교수님 탓을 하곤 한다. 지도 교수님에게 그렇게 배웠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처음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룹미팅을 할 때 지도교수님이 한 질문은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였다. 그때만 해도 교수님은 지시를 내리고 학생은 그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분야의 대가가 학생의 의견을 묻다니 참으로 눈동자까지 떨리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도 1년이 넘도록 교수님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진땀만 흘리는 일이 계속되었다. 교수님과의 미팅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미팅을 하고 난 오후에는 기숙사에 돌아와 누워있어야 했다.

그렇게 교수님의 그 당연하고도 예측 가능한 질문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그 파랗고 예지에 찬 눈동자는 언제나 제자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고,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어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는 동안 몇 해가 지나도록 필자는 논문이 없었다. 필자뿐만 아니라 그룹 학생들 대

부분이 학위를 받으면서 논문 한 편을 발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언젠가 누군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왜 우리 그룹은 포스트닥을 채용하지 않는가?' 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응답이 돌아왔다. '난 교육자라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는 것이 대답이었다.

지난해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어렵게 시간을 내 잠깐 교수님 댁에 들른 적이 있었다. 마침 옛날 동료들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미팅중이었다. 모두들 한국의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때문에 필자에게 질문을 퍼 부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느라 정작 교수님과는 한 마디도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들 일어설 때 '네가 찾아와서 반가웠다' 는 한마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학생 시절에 봤던 그 표정으로 웃어 주실 때 웬지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지도교수와 학생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듯하다. 학위를 받고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필자는 지도교수님을 흉내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도교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라' 는 숙제를 준 것이다.

제자에 대한 끝없는 지지와 격려

요즘은 학생들과 그룹미팅을 하는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다. 필자의 연구실이 생긴 이래로 처음 들어온 여학생인 A는 일년 내내 미팅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드디어 원하던 결과를 얻어 발표를 하게 됐다. 이제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했지만, A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룹 미팅 때마다 A는 자신의 말과 표현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점 또렷하게 발표하고 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열 명 가까운 실험실 식구들이 지난 일 년 동안 A를 말없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었다는 점이다. 지난 일 년 동안 미팅 때마다 긴장을 해 말문이 막혔던 A를 누구 하나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가 학생으로서 똑같은 입장이었을 때 같은 그룹의 학생들이 필자에게 그런 식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A가 논문을 쓰려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요즘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필자는 지도교수님이 내준 숙제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 같은 성취감이 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언젠가 그들이 자기의 말과 생각으로 대답해 오기를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지시된 방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여 '해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연이겠지만 '남자 나이 50' 이라는 책에서 학생들이 갖추었으면 하길 바라는 자세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행로에서 뜻밖의 것을 성취해낸다. 책임감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제공한다. 또한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겸손함과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논문을 많이 쓰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인가. 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태도를 비슷하게나마 가진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을 듯하다.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